

## 한미 FTA 체결 농업 영향 및 대응 전략

이 구 훈  
청도군 농정과장

### □ 우리나라 FTA 추진상황

- 발효된 FTA : 7건 17개국(칠레, 싱가포르, 아세안, EU 등)
- 협상타결 FTA : 1건 1개국(미국, '11,11,22 국회비준안 통과)
- 협상추진중 FTA : 7건 12개국(호주, 뉴질랜드 등)
- 협상준비 및 공동연구중 FTA : 12건 23개국(일본, 중국 등)

### □ 농업농촌의 위기와 기회

- 시장개방으로 인한 국내농축산업 타격
  - 한·미FTA 발효 15년차 농축산물 생산 감소액 : 1조 2,354억원(15년간 총 12조 2,252억원, 연평균 8,150억원)
  - . 발효 5년차 6,785억, 10년차 9,912억, 15년차 1조 2,354억원
  - . 품목별 : 축산 8,193억(66.3%, 쇠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, 낙농)
  - 과수 3,012억(24.4%, 사과, 배, 포도, 감귤, 복숭아)
  - 곡물 295억(보리, 콩) 채소/특작 853억(토마토, 인삼)

- ※ 전체피해의 90% 이상이 축산과 과수에서 발생
  - . 한·미FTA로 경북지역 15년차 연 생산감소액 : 5,405억원
  - 한·EU FTA체결 15년차 농어업 생산 감소액 : 3,172억원
  - 한·중 FTA로 인한 10년차 농업 생산 감소액 : 2조 338억
- ※ 축산위주의 한·EU FTA나 육류 및 과실위주의 한·미 FTA보다 광범위한 핵폭탄급 피해 우려

-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시스템 변화 불가피
  - 지구 온난화, 농어업 생산적지 북상, 자연농업에서 인공 농업으로 변화(친환경 유기농업, 식물공장, 빌딩농장 등)
- 기술농업이 경쟁력을 좌우
  - 과학기술 융복합을 통한 BT농업, 생명공학 중심의 IT, NT융복합 기술개발, 미생물·곤충·동물 등 생명자원 산업화,
- 새로운 가치와 차별성을 중시하는 소비자의 진화
  - 가격과 양 중심에서 건강과 영양, 안전성 중

심의 가치변화

- 안전한 식품, 친환경농산물 등 신뢰중심의 소비성향 강화
- 스마트폰과 SNS대중화로 신 소비시장(온라인) 활성화
- 40대이하의 귀농(촌)으로 농촌 활력증진
- 농촌어메니티, 농촌관광 산업화 등 농촌 상품화 확대(농촌 공간 가치 재발견, 농업의 다원적 기능 인식 확산)

수입금지로 단기 영향은 없을 전망

- 사과 : 후지사과는 20년간 관세철폐로 단기 영향은 적으나, 중·장기적으로 수입금지 해제 및 관세철폐, 기호 변화 등 수입량 증가로 피해
- 배 : 동양배는 장기간 관세철폐로 단기 영향 미미
- 복숭아 : 수입산이 선도유지 어려워 피해 미미
- 포도 : 비수기 관세인하로 겨울철에는 수입포도와 직접 경쟁하나, 성출하기에 계절관세 도입으로 피해 제한적

□ 지역(경북) 농업농촌의 현실

- 농업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노동인구 감소
- 경지면적 지속감소 및 영농규모화는 더딘 상태
- 농업소득은 높으나 농외소득이 낮아 농가소득이 낮은 실정
- 주요 농작물 재배면적 지속 감소
- 유가 및 농자재가 상승으로 품목 생산 경영비 지속 증가
- 전국 최대 과수, 축산집산지이나 영세농으로 경쟁력 부족
- 식품산업의 소량 다품목 구조로 규모 영세화

○ 채소·특작분야

- 고추, 마늘 : 미국의 수출 여력이 적은 품목으로 단기적 영향 미미, 장기적으로 수입증가
- 양파 : 단경기(1~3월)에 중국산을 대체하여 수입 가능성
- 인삼 : 가공품 원료용으로 저가인 엑기스, 분말류 등 가공제품 형태로 수입 증가

□ 한미FTA 품목별 영향

- 축산분야 : 중장기적으로 관세가 연차적으로 철폐되면 국내 가격 및 자급률 하락
  - 쇠고기 : 국내산 한우 소비감소, 한우송아지 가격 하락 등 한우 가격 및 사육기반 불안정
  - 돼지고기 :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산 돼지고기를 대체하여 가격 하락
  - 닭고기 : 냉장육은 저장기간이 짧아 수입이 어려워 가정 소비용은 국내산 냉장육으로, 업소용은 수입 냉동육 중심으로 시장 재편
  - 낙농품 : 무관세 쿼터로 수입되면 국내산 잉여 우유 증가로 수급 불안정
- 과수분야 : 사과, 배, 복숭아는 식물방역법상

□ 한미FTA 대응 정부대책

-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119조원 투융자 시책 추진 중
-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8조 3천억원 추가 투입

《단기 피해보전 대책》

- 피해보전직불 : 10년간 7,200억원
  - 수입증가로 기준 조수입 이하로 감소할 경우 차액 90%보전
- 폐업지원 : 5년간 5,000억원
  - 재배·사육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3년분 순수익 지급

**《중·장기대책》 : 농어업 경쟁력 강화, 농어가 소득기반 확충**

- 축산·원예 등 품목별 특성에 따라 생산·가공·유통 단계별 취약부문 보완
  - 축사 및 과수시설 현대화, 원예·과실·밭작물 브랜드육성
- 농어업의 부가가치 증대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및 농어촌 소득기반 확충
  - 농어업인 교육훈련, 농식품수산 가공산업 육성 및 수출지원 확대, 재해보험, 지역관광 활성화 등
- 한우 : 쇠고기 이력추적 시스템 전국 확대(2008년),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(300㎡에서 100㎡로), 송아지 공동 사육시설 설치(40개소), 경매시장 활성화, 송아지 생산 안정 기준 가격 인상 등
- 양돈 : 축사시설 현대화, 소모성 질환 방역 강화, 분뇨처리 및 친환경 양돈기반 조성, 종돈 산업 지원, 도축세 폐지
- 낙농 : 사료작물·청보리 등 조사료 생산 확대, 우유 소비 기반 확충 등
- 과일 : 거점 산지유통센터 설치(2017년까지 30개소), 거점 APC 보조금 상향(국고30→40%로, 지방비20→30%로, 자부담은 50→30%로 감소), 키 낮은 과수원, 밀식과원, 비가림 시설 확대 등
  - ※ 기존 농업 경쟁력 제고 대책과 연계 시너지 효과 극대화

□ 한미FTA 지역(경북)농업 대응방안

- 단기 피해보전(직접피해보전) 대책인 피해보

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정부방침에 따라 적정 대응 추진

**《중·장기 대책》**

- 축산 : 경북 축산의 뉴비전과 전략으로 미래형 친환경 축산허브 구축
  - 지역 축산업 보호 및 친환경 축산물 생산확대로 국제경쟁력 강화
  -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, 품질차별화 등 맞춤형 대책
  - 축산 인프라(위생, 방역, 분뇨, 환경) 구축 및 생산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제고
  - 도축장 구조조정 및 고품질 가공육 생산 등 도축, 가공, 유통 시스템 선진화
  - 유통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장치 마련 : 협의회 구성, 브랜드 중장기 육성계획 수립
- 과수
  - 수출산업으로 추진
  - 주산지 중심 과실 브랜드 경영체 육성, 생산자 조직화, 산지 규모화
  - 비용 절감형 고품질화 재배법 보급 확대
  - 지구 온난화 적응 가능한 사과·배 품종 개발
- 채소
  - 우수 브랜드 경영체 육성 및 생산시설 현대화 추진
  - 생산비 절감을 위한 우량 품종 개발 보급 (고추: 기계화 적합 신품종 개발, 양파: 수입 대체 품종)
- 특작(인삼)
  - 인삼 전문생산단지 육성으로 시설 현대화

- 인삼 생산, 가공, 유통 과정의 계열화 촉진

○ 수산

- 직접 피해품목 피해보전
- 수산업 자생력 회복을 위한 품목별 경쟁력 강화
- 수산보전제를 단계적으로 확대

《제도 및 재정 기반 구축》

- FTA 대책과 설치 ('08년)
- 경북농어업FTA대책특별위원회 운영('08년)
-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확대('17년까지 2,000억원)
- 경북농민사관학교 농업인CEO 양성